

‘빅 밴’ 경쟁 점화... 쏘라티·마스터·스프린터 삼각구도

〈현대차〉

〈르노삼성〉

〈벤츠〉

현대차 ‘쏘라티’

8단자동변속기, 안전사양 대거 탑재

르노삼성 ‘마스터 버스’

공간·가격 강점... 사전계약 450건

벤츠 ‘스프린터’

글로벌 시장서 360만대 판매



현대차 쏘라티.



르노 마스터 버스



벤츠 스프린터.

만에 완전변경된 3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됐다.

스프린터는 국내에서 ‘투어러 319 CDI’와 ‘519 CDI’ 2가지 모델로 판매되고 있다. 519 CDI는 차체 길이가 다른 ‘롱’과 ‘엑스트라 롱’ 2가지 모델로 나뉜다. 319 CDI는 전장 5932mm, 전폭 2020mm, 전고 2376mm 사이즈에 휠베이스는 3665mm다. 519 CDI 엑스트라 롱 모델은 전장이 7367mm나 된다.

스프린터에는 3L OM642 V6 디젤 엔진이 장착됐으며, 190마력과 44.9kg·m의 출력을 발휘한다. 7단 자동 변속기인 7G 트로닉 플러스는 드라이브 셀렉트 기능을 사용, 수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기어 변속과 유지 비용을 낮춘다.

스프린터는 능동형 디스트로닉 차간거리 조절 어시스트를 적용 운전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거리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 운행하여 정체된 도로나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준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7000만원대 후반부터 3억원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자동차가 뛰어난 가성비로 갖춘 ‘마스터 버스’를 출시, 국내 승합차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쏘라티’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프린터’와 내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마스터 버스가 첫날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된 르노 마스터 버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5일 까지 450건의 사전계약이 등록됐다.

◆가성비 갑 마스터 버스

마스터 버스는 좌석이 넓고 편안한 고정식으로 설계됐다. 모든 시트에 3점

식 안전벨트를 달아 안정성을 높였다. 시트는 장거리 이동에도 앉아있기 편안하게 고안됐으며, 앞 좌석과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안락한 여행을 돕는다. 무엇보다 경쟁차로 거론되는 현대 스타렉스와 쏘라티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르노 마스터 버스의 가격은 ▲15인승 4600만원 ▲13인승 3630만원이다.

15인승 마스터 버스의 강점은 넓은 공간과 가격이다. 경쟁모델인 현대차 쏘라티 가격은 스탠다드 6103만원, 디럭스 15인승 6342만원, 디럭스 16인승 6344만원, 럭셔리 6489만원이다. 스탠다스, 디럭스, 럭셔리 15인승과 디럭스 16인승

모델을 판매한다. 마스터 버스 15인승과 쏘라티 기본 트림인 스탠다드와 비교해도 15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현대차 ‘쏘라티’ 안전사양 대거 적용

현대차 쏘라티는 국산차 최초의 세미보닛 스타일로 만들어진 상용차다. 2014년 9월 독일 하노버모터쇼에서 먼저 선보인 뒤 이듬해 4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됐다. 국내에서는 전주공장, 해외에서는 터키공장에서 ‘H350’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2015년 판매를 개시한 이후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2015년 1680대, 2016년 4439대, 2017년 5102대, 지난해는 6100대가 팔렸다.

쏘라티는 전장 6195mm, 전폭 2038mm,

전고 2665mm의 사이즈를 가졌다. 휠베이스는 3670mm다. 버스로 컨버전하면 16인이 앉을 수 있다.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43kg·m를 내는 2.5L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했다.

상용차이지만 차선이탈 경보장치, 언덕길 발진 보조장치, 4륜 디스크 브레이크, 주차보조시스템, 전·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테일게이트 열림경고 등 안전 사양도 대거 탑재됐다.

◆벤츠 ‘스프린터’ 고급스러움

스프린터는 마스터와 함께 유럽지역 상용 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1995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360만대가 판매됐다. 올해 초 13년

LG전자 실속형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 선풍

14일 이통3사 통해 ‘LG X6’ 출시
64GB 저장공간 3500mAh 배터리



LG X6.

/LG전자

LG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제품군에도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다.

LG전자는 오는 14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탁월한 카메라 성능을 비롯해 고성능 멀티미디어 기능과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갖춘 ‘LG X6’를 출시한다. 출고가는 34만9800원이다.

LG X6는 제품 후면에 16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 화각 120도를 지원하는 초광각 카메라, 사진의 깊이를 추출해 아웃포커스를 구현해주는 심도 카메라 등 총 3개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1600만 화소 표준 카메라와 심도 카메라가 인물과 배경을 정확하게 구분해 아웃포커스 기능을 지원한다.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고 인물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사람의 시야와 비슷한 120도 화각은 보이는 그대로의 넓은 장면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다.

또한 LG X6는 가장 높은 해상도로 촬영해도 1만5000장 이상 저장할 수 있는 64GB의 대용량 저장 공간과 3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다. 화면은 6.26인치 대화면으로 중앙 상단 카메라 부위를 물방울 모양으로 감싼 ‘뉴 세컨드 스크린’으로 화면을 제외한 베젤을 최소화시켰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건물안에서도 빠르게... LGU+, 5G 인빌딩 구축

강변테크노마트서 솔루션 검증
최대 품질 600Mbps 다운 구현
하반기 지하철역 등 본격 확대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인빌딩 구축작업을 본격화한다.

LG유플러스는 대형 빌딩의 내부 서비스 강화를 위해 5G 인빌딩용 장비를 설치, 장비와 안테나를 케이블로 연결해 5G 품질을 확보하는 솔루션 검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시범적으로 강변 테크노마트 판매동과 사무동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서비스하는 인빌딩 5G 장비를 구축, 품질 측정 결과 최대 600메가비피에스(Mbps) 다운로드 속도를 확인했다.

이번에 검증을 완료한 삼지전자 5G



LG유플러스 직원이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인빌딩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광중계기는 기지국 장비 제조사인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등 모든 제조사 장비와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돼 전국망 구축에 용이하다. 이 장비는 모듈 및 합체 최적화를 통해 장비 사이즈를 통

탐에불루션(LTE)보다 30% 이상 소형화했다.

시분할 방식(TDD)의 5G 광중계기는 기존 주파수 분할방식(FDD)의 4G 광중계기와 달리 정확한 시간 동기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와 삼지전자가 5G 장비제조사에 협업을 제안, 상용화를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광중계기 상용화로 LG유플러스는 5G 인빌딩 커버리지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하반기부터 5G 인빌딩 구축 작업을 본격화해 대형 빌딩과 지하철 환승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5G 인빌딩 장비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 인빌딩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매직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로 여름 공략

렌탈료 면제 등 할인 프로모션 진행



SK매직의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 광고 화면.

SK매직은 정수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SK매직은 6월 초부터 공중파 및 케이블 TV에 올인원 직수얼음정수기 CF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냉수, 온수, 정수, 얼음까지 직수로 만드는 건 오직 SK매직뿐이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광고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오직 매직’이라는 카피로 톤을 맞춰 전달력을 극대화했다.

SK매직물에서 제품할인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내 접수 고객

은 6개월 렌탈료를 면제해 주고, 의무사용 기간을 5년으로 하면(기존 3년) 월 렌탈료에서 4000원을 깎아준다. 또 T멤버십 회원이면 10%를, 제휴 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에 따라 1만1000~2만30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김승호 기자 bada@

진에어, ‘카카오 니니즈 캐릭터’ 래핑 항공기 띄운다

카카오 브랜드 컬래버프로젝트

진에어는 카카오의 니니즈캐릭터 모습을 담은 ‘플라잉 니니즈’ 래핑 항공기를 띄운다고 11일 밝혔다.

진에어에 따르면 플라잉 니니즈 항공기의 래핑 디자인은 ‘카카오 니니즈와 함께하는 흥겨운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완성됐다. 북극곰이었지만 토끼가 되어버린 ‘스카피’와 초콜릿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아기 하프물범 ‘앙몬드’가 나란히 서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진에어의 B737-800 항공기 동체에 배치됐으며, 수직 꼬리 날개 쪽 하단에는 존재부터 비밀에 쌓인 공룡 ‘쵸리드’가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카카오 니니즈 캐릭터의 모습을 담은 ‘플라잉 니니즈’ 래핑 항공기

/진에어

또한 진에어는 탑승권을 비롯한 기내 테이블, 헤드레스트 커버, 기내 엽서, 종이컵 등 기내 용품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에어X니니즈 컨셉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앞으로 진에어는 플라잉 니니즈 항공

기를 소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래핑 항공기 제작은 진에어와 카카오의 브랜드 콜라보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연우 기자 yw964@